「레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제1강 루카치의 레닌

강사 : 정남영

* 이 강의는 Georg Lukács, *Lenin : A Study on the Unity of his Thought*, Trans. Nicholas Jacobs (Cambridge, Massachusetts : The MIT Press, 1970)[1]의 내용을 일정한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머리말—맑스주의 내에서의 레닌의 위상

루카치는 서언에서 '레닌의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책의 기본 의도를 설명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의 의도는 레닌을 맑스에 버금가는, 어떤 면에서는 맑스를 이어받아 더 발전시킨 혁명적 사상가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다.("레닌은 맑스 이래 혁명적 노동계급운동에 의해 산출된 가장 위대한 사유가이다." 9) 루카치가 말하는 레닌의 위대함의 핵심은 ①맑스주의 이론(보편)을 ②구체적인 정치적 실천(특수)에 ③변증법적으로 적용한 데 있다. 루카치는 ①의 측면에서는 레닌이 내용상으로 새롭게 기여한 바는 없다고 한다. 예컨대 제국주의론의 경우에도 레닌은 경제이론가로서는 로자 룩셈부르크나 힐퍼딩의 전문성에 뒤떨어지지만 그것을 당대의 정치적 실천에 적용하는 데(②)에서 탁월함을 보인다. 이 탁월함은 바로 변증법적 적용(③)에 있다. 이것이 그를 수정주의자, 기회주의자 등과 구분해준다. 루카치는 이론의 실천에서의 변증법적 구체화 자체를 이론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레닌에게서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진행은 곧 추상적 이론에서 구체적 이론으로의 진행이 된다. 이는 맑스에게서도 보이지 않았던 측면이기 때문에 루카치는 레닌이 유물 변증법의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제 루카치 자신이 책에서 각 장의 제목으로 정한 논점을 따라가면서 루카치의 레닌을 만나보기로 하자.

1. 혁명의 현재성

레닌을 그가 당시 비판했던 노동운동 내의 다른 조류들과 구분해주는 중요한 점은 혁명의 현재성(the actuality of revolution)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당대의 실천적 과제라는 생각이다. "혁명의 현재성, 이것이 레닌의 사상의 핵심이며 맑스와의 결정적 연결고리이다."(11) 이는 총체성에의 요구를 낳는다. 다시 말해서 당대의 모든 문제들을 혁명의 현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혁명의 현재성이란 일상적인 사건들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드러나더라도 다른 입장들—예컨대 자본주의를 영속화하는 속류 맑스주의자들[2]—의 간섭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

1) 이 책은 1924년에 처음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2) 속류 맑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토대가 확고한 것으로 보며, 토대가 눈에 띄게 흔들릴 때에도 '정상상태'(normality)로의 귀환을 희망하고 빈다. 위기를 일시적인 에피소드로 보며, 투쟁을 무적의 자본주의 체제에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하게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본다. 그에게 바리케이드 위의 투사들은 광인들이요, 패배

기 때문이다.[3]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레닌에게 부분을 일반화하였다는 비판을 가하게 된다.[4]

루카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맑스주의의 살아있는 핵이라고 하면서, 맑스주의 전체로부터 혁명을 통째로 제거하기 위해서 맑스의 틀린 개별적인 예측들에 집착하는 기회주의적 해석이나,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타협적으로 대응하는 맑스의 '정통' 옹호자들[5]의 벽을 뚫고 레닌이 이 문제에 관한 맑스주의 이론의 순수성을 재정립했다고 한다.

혁명의 현재성이란 혁명이 어떤 일정한 순간에 실현된다는 말이 아니다. 혁명의 현재성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말이다. 즉 혁명의 현재성이란 "각각의 일상적 문제를 사회역사적 총체와의 구체적 연관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계기들로서 연구하는 것"을 함축한다.(13) 이는, 시대의 모든 문제는 동시에 혁명의 근본적인 문제가 됨을 의미한다.

2. 주도적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레닌은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서 프롤레타리아가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갖는다고 보았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현재성이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그 혁명의 과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레닌은 자본주의적 발전과 진보성이 인정되고 당시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이 필요하지만[6]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따라서 부르주아지의 주도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7] 이제는 자본주의적 발전 혹은 부르주아 혁명도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 레닌의 생각이다.

부르주아지에 대한 환상을 떨치는 것과 함께 피착취의 다른 계층들과의 관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선 혼란스럽고 추상적인 기존의 '민중'(people, 인민)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가 나머지 피착취자 계층과 결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피착취자 계급 전체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생각은 레닌이 버려본 적이 없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계급연합이라는 의미의 새로운 민중 개념이 등장한다.

3. 프롤레타리아의 전위

한 혁명은 실수이며, 사회주의의 구축자들은 철저한 범죄자들이다.

3) 현실의 총체성이 구성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중심 고리'의 중요성이 언급되는 대목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4) 루카치는 이러한 비판은 맑스에게도 가해졌다고 지적한다. 맑스는 영국 공장체제라는 미시적 세계 속에서 자본주의적 발전 전체라는 거시적 세계를 보았던 것이므로 이들의 비판은 빗나갔다. 여기서 루카치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시대의 모든 사건의 뒤에서 작용하는 살아있고 능동적인 주된 경향을 보는 눈이다.

5) 카우츠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문제는 먼 미래로 맡기어도 무방하다고 베른스타인에게 설명한다.

6) 이는 나중에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이어진다.

7) 루카치는 이를 변증법적 태도라고 설명한다. "어떤 사실이나 경향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규범을 구성하는 실재로서** 받아들여져야 함을 결코 함축하지 않는다."(18)

전위당의 필요도 혁명의 현재성에서 온다. 맑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코뮤니스트를 다른 노동자당과 이렇게 구분했다.
① 국가와 관계없이 프롤레타리아 전체의 이익을 제시한다.
② 투쟁의 모든 단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운동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
요컨대 코뮤니스트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의 실질적 체현이다. 조직의 문제는 프롤레타리아가 계급의식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획득하여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느냐와 연관된다. 이는 ① 자본주의의 경제적 힘들의 기계적 발전 ② 대중의 자생성의 단순한 유기적 성장을 통하여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레닌의 (그리고 루카치의) 생각이다.

또한 혁명은 프롤레타리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레닌이 말한 '혁명적 상황' : '**하부계층**은 옛날 방식을 **원하지 않고**, **상부계층**은 옛날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때.' '혁명은 (착취자와 피착취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전한 국가적 위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위기가 깊을수록 많은 계층들이 관여되고 운동들이 다양해지며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의 관계는 더 혼란스럽고 가변적이 된다. 그래서 부르주아 사회의 파열에 기여하는 모든 경향을 장려하고 도우며, 모든 반란을 총체로서의 혁명적 과정으로 편입시키는 일을 하는 전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레닌의 당 개념은 다음 두 극을 포함한다. ① 당원들의 극히 엄밀한 선별. 계급의식에 입각. ②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피억압자와 피착취자에 대한 유대와 지지. 요컨대, 당은 목적의 단일성(엄밀하게 프롤레타리아적 관점의 혁명 지도)과 보편성(국민적, 국제적 성격)의 결합이다.

당이 의식적 능동성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당은 아래와 같은 기계론적 숙명론과의 이중적 단절을 함축한다.
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은 계급상황의 기계적 산물이다.
② 혁명 자체가 숙명적으로 폭발되는 경제적 힘들의 기계적 결과일 뿐이다.[8)]

<u>전위가 혁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전위가 하는 일은 혁명을 준비하는 것이다</u>. 이는 ① 당의 행동들을 통해서 혁명적 경향들을 가속시키고 ② 혁명적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데올로기적, 전술적, 물질적, 조직적 과제들에 관하여 프롤레타리아를 대비시키는 것이다. 당의 활동의 산물로 혁명적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당의 역할은 객관적 경제적 힘들의 궤적을 예견하고 그렇게 창출된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적절한 행동이 무엇이 되어야할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u>대중은 행동으로부터만 배운다</u>. 즉 투쟁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이익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투쟁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계속적으로 변하며, 그에 따라 조건과 무기 또한 계속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전위는 투쟁하는 대중보다 **한 걸음 앞에서**(one step in front) 길을 보여주어야 그 과제를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은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도달해야 한다.

8) 이른바 자본주의의 '(자동)붕괴론'이다.

대중의 가변적인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매우 엄한 당규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당조직에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고정된 특수성은 장애물이다. 당은 대중의 자생적 발견들을 투쟁의 총체와 연관시켜야 한다. 즉 대중의 투쟁으로부터 배우면서도 능동적이어야 한다. "이론의 모든 독단주의와 조직의 모든 경화증은 당에게 큰 재난이다."(36) 당조직은 상황에 따라 변형되어야 하며(변형을 못하면 해체된다), 변형을 통해 대중의 변형과 전진을 증진한다.

레닌의 전위론은 유토피아적이지 않다. 레닌의 조직 개념은 변증법적이다. 조직은 역사적 발전의 산물인 동시에 기여자이다. 당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한다. 당과 계급의 유익한 상호작용 과정은 당과 당원의 관계에서도 반복된다. "레닌의 당 개념은 맑스주의의 기계론적이고 숙명론적 속류화와의 가장 철저한 단절이다."(38) 세계를 해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 것.

4. 제국주의 : 세계 대전과 내전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기로 파악하였다.[9] 그러나 1914년과 그 이후 오랫동안 전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레닌은 혼자였다. 태도의 차이는 어디서? 이는 그때까지의 이론적, 전술적 및 기타 입장들의 직접적인 논리적 귀결이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경제적 이론으로서는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 레닌은 힐퍼딩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며 깊이와 폭은 로자에 미치지 못한다. 레닌의 뛰어남은 "제국주의 경제이론을 당대의 모든 정치적 문제와 구체적으로 결합시킨 것"이다.(41) 카우츠키 : '울트라 제국주의,' 경제를 정치와 분리. 로자(와 판네쿠크) : 경제주의는 아니만 경제의 정치의 결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자는 단순히 전반적 이론을 수립하였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구체적인 계급세력들에 대한 이론, 제국주의가 창출한 구체적 세계상황에 대한 이론이다. 제국주의의 본질은 독점자본주의이다. 독점자본주의는 역사상 최초로 세계자본주의를 창출한다. 국가들 간의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식민지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민족해방투쟁).

제국주의 시대라고 해서 낡은 생산방식들과 그에 조응하는 세력들, 민족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세계열강들 사이의 제국주의적 각축이라는 맥락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따라서 그 의의는 구체적인 총체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반혁명적인 되는 부르주아지는 그 혁명적 전통을 포기하고, 혁명적 과거의 유업을 프롤레타리아에게 넘긴다. 이제부터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유일

9) 혼자는 아니었다. 힐퍼딩, 로자가 있다. 로자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재생산과정의 필연적 귀결로 제시하는 데 성공한다.

한 계급이다.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의 실현인 동시에 지양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신들의 한계(민족주의 등)를 극복하는 모든 피억압자들을 지도하는 위치로 올라가야 한다. 민족독립을 향한 피억압 민족의 투쟁은 억압국의 프롤레타리아에게도 피억압국의 프롤레타리아에기도 거대한 자기교육의 실행이다.

제국주의 전쟁이 창출하는 세계상황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① 프롤레타리아가 모든 피억압자와 피착취자들을 지도하여 싸움 →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쟁, 내전
② 수백만명의 프롤레타리아가 착취자들의 독점의 강화와 확대를 위하여 서로를 살해.
그래서 선택은 전쟁과 평화(투쟁하지 않는 것)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이냐 내전이냐 사이의 선택이다.

[전쟁 이전의 대중파업] 부르주아지가 국가를 장악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봉쇄. 노동자들은 국가에 대항하여 대중파업의 전술을 택함. 대중파업에 대하여 부르주아지가 취하는 조치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는 무력함. 프롤레타리아도 무장을 하지 않으면 대중파업은 실패. 부르주아지의 군대(주로 노동자들과 농민들로 구성된다)를 해체하고 부르주아지의 무기의 총구를 부르주아지에게로 돌려야 한다. [전쟁] 제국주의 전쟁은 이 상황을 극도로 첨예화하였음을 의미한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관계가 그 핵심이다. 전쟁은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바처럼 정치의 연장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의 연장이다.(53) “따라서 전쟁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지는 못한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든 그 속의 한 계급에 대해서든.” 전쟁의 새로운 측면은 모든 문제들의 유례없는 양적 심화가 질적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만 새로운 상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은 사회경제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이고, 계급투쟁의 한 단계일 뿐이다. 그래서 제국주의론은 동시에 제국주의 시대의 노동계급 운동 내의 상이한 흐름들에 대한 이론이 되었다. 이 상이한 흐름들은 그 이전의 노동운동의 흐름들의 유기적 발전이다. 예컨대 Sheidemann, Plekhanov, 혹은 Vandervelde의 태도는 수정주의의 원리들을 새로운 상황에 수미일관하게 적용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 것은 레닌뿐이었다.

수정주의의 본질
① 역사적 유물론의 ‘일면성’을 비판한다. 즉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에서만 보는 편협함을 비판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정주의는 “역사적 과정의 늘 변하는 산물을 고정된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② 변증법 거부. 그런데 변증법이란 사회가 모순적 발전에 의해서, 즉 혁명적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의 이론적 정식화일 뿐이기 때문에, 변증법의 거부는 혁명적 관점과의 본질적 단절을 의미한다.
③ 이로 인하여 수정주의의 사유는 역사적, 구체적, 창조적 차원을 잃는다. 그들에게 실재는 도식적, 기계론적 법칙들에 종속된다. 동일한 현상을 반복하는. “그들은 이 법칙들에 의하여 포괄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 혹은 그 프롤레타리아의 의지에 의존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여긴다.”(55-56)

④ 이 법칙들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법칙들로서 간주되고, 사회는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식은 부르주아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
⑤ 따라서 수정주의는 현실정치(realpolitik)에 묶여 있다. 계급 전체의 진정한 이익을 희생시키고 특수한 집단들의 직접적인 이익들을 대표한다.

수정주의의 사회적 뿌리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구조 안에도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자집단에 있다.

5. 무기로서의 국가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맑스의 사고의 높이를 회복한 것은 유일하게 레닌이었다. 늘 그렇듯이 문제는 이론의 일상적인 실천에서의 구체화였다. 레닌은 국가의 문제가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즉각적인 과제라고 보았고 그렇게 제시했다. 맑스를 바로 잇는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문제와 일상적 활동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국가의 문제는 미래에 실현될 최종적 문제로 간주되게 되었다. “레닌에게 와서야 이 ‘미래’는 이론적으로도 현존하게 되었다.”(62)

자본주의 아래에서 착취받는 이들(농민들, 병사들) 모두와 함께 프롤레타리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대중으로 모아서 싸움으로 이끌 수 있는 기관들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관들—소비에트들—은 부르주아 사회 내에서 이미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계급으로 조직하는 프롤레타리아의 무기들이다. 일단 존재하게 되면 혁명이 의제로 된다. 이러한 조직화는 부르주아 국가기구에 대한 투쟁을 취해야 한다. 양자는 공존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의 국가기구는 소비에트로부터 출현한다. 아직 초기인 1905년에도 노동자 소비에트는 반정부(anti-government)였다. 진정한 프롤레타리아의 권력장악(seizure of power)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극좌파의 이론가들이 소비에트를 영속적인 계급조직으로 보고 당과 노조를 대체하려 하는데, 이는 혁명적 상황과 비혁명적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 실제적 역할은 국가권력을 위한 투쟁 즉 내전이다.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의 무기이다.

소비에트는 자본주의에 의해 해체되고 원자화된 단편화된 계층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한다. “소비에트 체제의 가장 고결한 기능들 중의 하나.”(67) 프롤레타리아 및 기타 피억압계층의 진정한 생산적 에너지는 권력의 장악 이후에만 각성될 수 있다. 가능성에서 실재로.

-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역사상 최초의 계급국가이다.
-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에게 극히 중요한 자기교육의 수단이다.
- 국가권력의 장악은 계급투쟁의 한 국면일 뿐이다.
- 무기로서의 국가가 프롤레타리아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는 프롤레타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에 달려있다.
- 권력의 장악이 사회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가 노동운동의 직접적 과제로 됨을 의미한다.

▣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 『국가와 혁명』(*The State and Revolution*)(1917년 8월~9월)에서
▶ "그것은 원래적 의미의 국가가 더 이상 아니다. 다수인 어제의 임금노예들이 소수의 착취자들을 진압하는 것은 비교하자면 매우 쉽고, 단순하며,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노예, 농노, 임금노예들의 봉기를 진압하는 것보다 훨씬 소량의 유혈을 수반할 것이고 인류가 대가로 치를 것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에게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과 병립할 수 있는 것이기에 특별한 진압기구의 필요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물론 착취자들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고도로 복잡한 기계 없이는 민중을 억압할 수 없다. 그러나 민중은 매우 단순한 '기계'를 가지고도, 거의 '기계'가 없이도, 특별한 장치가 없이도, 무장한 민중(쏘비에트를 필두로 한)의 단순한 조직화에 의하여 착취자들을 진압할 수 있다."

▶ 그러나 첫째로 이 일에는 그 어떤 특별한 기계도, 진압의 특별한 장치도 필요하지 않다. 이는 무장한 인민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과도한 행위들－이는 사회적 교섭의 규칙들을 어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의 근본적 사회적 원인은 민중의 착취, 그들의 궁핍과 가난임을 알고 있다. 이 주된 원인의 제거와 함께 과도한 행위들은 '사멸하게' 마련이다.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떤 순서로 사멸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사멸할 것이라는 점은 안다. 그것들이 사멸하면서 국가 또한 사멸할 것이다.

▶ 그러나 국가의 문제를 완전히 회피하면서, 그리고 파리 꼬뮌 이전과 이후의 맑스주의의 발전 전체를 무시하면서 "아나키즘과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기회주의로 빠짐을 의미한다. 기회주의가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은 막 언급한 두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기회주의의 승리가 된다.

6. 혁명적 현실정치

레닌의 경탄할 만한 리얼리즘은 맑스주의의 일관된 적용일 따름이다. 레닌은 사회주의를 완료된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산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레닌의 현실정치는 모든 유토피아주의의 최종적 제거이다.

또한 레닌의 현실정치는 유물 변증법의 최고 단계이다.
① 주어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
② 이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새로운 경향들에 대한 투명한 인식
자본주의의 관습적 사고는 새 것을 낡은 것의 관점에서 보게 하고, 오늘을 어제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을 사람들에게 부여한다.

기회주의자들은 혁명은 요원하므로 타협해야 한다고 한다. 레닌에게 타협은 혁명의 현재성의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귀결이다. 레닌에게 타협이란 혁명을 돕거나 적어도 적을 약화시키는 모든 경향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레닌의 타협에 대한 이론과 전술은 '인간이 역사를 만들지만 자신이 선택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맑스주의적 역사 인식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귀결이다.

좌익 급진주의자들의 슬로건은 '비타협주의'인데, 이는 계급투쟁의 영역에서는 혁명적 가능성이 부재하는 곳은 없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급진좌파와 기회주의자들(이들은 타협을 현실정치의 관점에서만 본다)의 공통점은 혁명의 임박과 현재성에 관하여 비관적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말하는 타협과 레닌이 말하는 타협은 어휘만 같다.

레닌의 변증법적 현실정치가 모든 경향들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경향들은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서 보는 것은 아니다. 총체는 여러 고리들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중심고리(중심적 문제)가 존재한다. 총체는 계속 발전하며 그 과정에서 중심고리도 달라진다. 전체는 항상 각 고리에 담겨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중심고리(중심 문제)를 파악하면 총체에 접근하게 되고 다른 계기들도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레닌의 실천은 그가 맑스와 엥겔스로부터 물려받은 변증법에 더 폭넓고 더 완결되며 이론적으로 더 발전된 형태를 부여했다. 이런 의미에서 레닌주의를 유물 변증법의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레닌주의는 역사적 유물론의 이론이 프롤레타리아의 일상적 싸움에 더 가까이 간 것을 의미한다. 변증법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레닌을 연구해야 한다.

① 구체적인 상황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보편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을,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한다.
② 상황의 새로움 속에서 이전의 사태전개와 연결시키는 것을 본다.
③ 역사적 발전의 법칙들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산출되는 새로운 현상들을 관찰한다.
④ 전체에서 부분을 보고, 부분에서 전체를 본다.
⑤ 역사적 필연성 속에서 능동성의 계기를 발견하고 능동성 속에서 역사적 필연성과의 연관을 발견한다.
(88)

7. 후기 1967

후기는 이론적 일관성을 가진 논의가 아니므로 주목할 만한 점 몇 개만 추려보기로 한다.

- 레닌은 여전히 현재성을 가진다.
- 조직문제에서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스탈린 비판을 이미 담고 있었다.
- 레닌 시대와 달라진 점 : '제국주의적 발전이 필연적으로 세계 대전을 낳는다'는 것은 오늘날 일반성 타당성을 잃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 혁명가로서의 레닌

레닌은 당통이나 로베스피에르라는 두 대립적 유형과는 다른 제3의 유형의 혁명가이다. 금욕적이지 않고 해학적이며, 개인에 대한 증오를 함축하지 않는다. '피와 판단'(blood and judgement, *Hamlet*)이 그에게는 잘 섞여 있다. 성공해도 허영심을 갖지 않고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는다. 있을 수 있는 실패 혹은 실수를 용인하며, 수사(修辭)를 싫어했다. 가장 일반적인 철학범주들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활용할 줄 알며 패배에서도 도움이 되는 측면을 본다. 즉 경험으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철저하게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늘 준비가 되어있고 성실한 사람'(a man of readiness and constancy). '영원한 준비성의 화신'으로서의 레닌의 형상.

논점들

1. '혁명의 현재성'은 현재 우리의 시대에도 지금도 유효한가?
2. 지도적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를 보는 시각, 그리고 전위당의 필요성은 어떠한가?
3. 우리의 시대는 여전히 레닌이 말한 제국주의 시대인가?
4. 우리에게 레닌 식의 노동자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5. 들뢰즈나 네그리가 비판하는 '변증법'과 루카치가 말하는 레닌에 의해 현실정치로 발전된 변증법은 같은 것인가?

<게오르그 루카치 연보>

1885	헝가리	부유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남
1918		러시아 혁명 후 그 여파로 헝가리 공산당에 입당
1919	비엔나	벨라 쿤의 공산주의 정권에서 '문화 및 교육 위원'으로 활동. 정권이 무너진 후 백색 테러를 피해서 비엔나로 감. 그곳에서 10년간 머뭄. *Kommunismus*라는 잡비 편집. 이는 제3인터내셔널의 초좌파들에게 초점이 됨. 헝가리 지하운동원으로 활동. 1919에서 1922 사이에 쓴 글들이 뒤에 『역사와 계급의식』으로 출판됨
1923		『역사와 계급의식』 출판. 코민테른으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당으로부터의 축출과 파시즘과의 싸움으로부터 배제에 직면하여 견해를 철회함
1929~1933	베를린	베를린 체류. 1930-31에 잠깐 모스크바의 Marx-Engels Institute에 다님. 31년부터 리얼리즘에 관한 글들을 쓰기 시작
1933	모스크바	모스크바로 가서 Institute of Philosophy에 다님. 35~39년간에 쓰인 에쎄이들이 나중에 『유럽리얼리즘연구』로 출판
1937		『역사소설론』 1,2 부 러시아어로 출판
1945	헝가리	헝가리로 되돌아 와서 의원, 부다페스트 대학의 미학 및 문화철학 교수가 됨
1946		『러시아 리얼리즘 연구』(아마 헝가리어로 출판된 듯)
1948		『청년 헤겔』(독일어)
1954		『이성의 파괴』 독일어판 출판. 헝가리어판은 1953년 출판
1955		『역사소설론』 영어판 출판
1956	루마니아	헝가리 봉기의 주요 인물. 임레 나지 정부의 문화상으로 활동. 체포되어 루마니아로 추방됨
1957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되돌아오도록 허용됨. 이전의 권력과 지위를 잃은 채 비평과 철학 작업에 전념
1958		『비판적 리얼리즘의 현재적 의미』 독일어판 출판(57년 집필완성)
1962		『유럽리얼리즘연구』 출판
1963		*The Meaning of Contemporary Realism* 출판
1969		전집(독일어판) 출판
1971		사망